

# 八景의 意味體驗에 따른 風景<sup>\*1)</sup> 概念의 構造에 關한 研究

秦熙成\* · 盧載鉉\*\*

\*慶熙大學校 産業大學 造景學科

\*\*慶熙大學校 大學院 造景學科 博士過程

## A Study on the Logical Structure of the 'Landscape' with a Meaning Context

Jin, Hee-Sung\* · Rho, Jae-Hyu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Kyung Hee Univ.

\*\*Grad.,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Kyung Hee Univ.

### ABSTRACT

In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al beauty and the human frame of mind, or the interconnections between the Landscape and the point of view, we are concerned primarily with the external factors.

Historically, certain physical features tended to cause shifts in human attitudes toward landscapes; We concentrate on this phenomenon of changeful scenery rather than on what psychological factors caused certain landscapes to be regarded as remarkable or unique.

In a similar fashion we must ask ourselves what the basic elements in landscape are and attempt to ascertain their visu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before we attempt to design environments that are fundamentally, physical in character. Furthermore, the experience of meanings, a part of literal association process, appeared through the intension of nature study looking for the best landscape phenomena out of simple naturelooking. Of course, as the variable degree of landscapes changes, the dualistic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objects shows the different experience of meanings as the time changes even in landscapes which possess variable factors in same season.

The study is conducted by defining the nature of recognizing and appreciating the logical structure of the concept "Landscape" after analysis of meaning context appeared in 'Kyung' which is consists of time, space and elements in landscape.

'90, 8. 한국조경학회 學術論文發表會에서 발표된 論文임.

註 1) 본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風景과 景觀은 兩者 공히 인간의 可視圈域內 시·청·후·촉각 등을 통해 파악되어 지는 現象으로 風景은 快·不快 개념을 포함한 觀照·觀賞의 심미적 태도가 강한 반면 景觀은 과학적·객관적 개념이 내포된 보다 광역적·포괄적 지역 범위의 현상으로 규정한다.

## I. 緒 論

### 1. 研究의 背景 및 目的

景觀은 自然景觀이든 人工景觀이든 人間生活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의 場에서 얻어지는 連續의 體驗<sup>30)</sup>으로 공간적으로는 특정순간에 존재하는 일련의 物理的·社會的 排列이며 시간적으로는 지속적인 변화를 통하여 반복되는 배열의 변동성으로 이해되어 진다. 이러한 景觀理解를 위한 연구는 단순히 구체적이며 의식적으로 지각되어지는 『實體論의 景觀把握』뿐만 아니라 土着的 삶<sup>18)</sup>의 일부로서 문화적 脈絡을 담은 『意味論의 景觀把握』<sup>31)</sup> 또한 前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傳統空間에서는 시대적·사회적 공유가치가 강하며 장소적 屬性으로 인하여 意味內容과 특성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sup>20)</sup> 意味論의 景觀把握은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 위에서 景觀의 본질을 찾으려는 사고적 의지인 동시에 보편적 질서 속에서 보다 향상된 품위를 추구하려는<sup>17)</sup> 景觀設計의 實踐의 욕구로 歸一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視覺의 質이 含蓄된 風景<sup>36)</sup>”인 景觀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景觀研究의 시도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景觀의 본질적인 속성과 그 의미가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는 주로 일본에서 심도깊게 수행되어 왔는데 桶口(1975),<sup>32)</sup> 條原(1977)<sup>30)</sup>(1979)<sup>31)</sup>, 小柳(1977)<sup>30)</sup> 등이 조작론적 景觀론에 입각한 景觀구조의 이론적 기반을 구축한 이래 早崎(1981),<sup>37)</sup> 掘繫(1988)<sup>7)</sup> 등은 체험景觀의 매력요인과 구조에 관해, 上杉(1982)<sup>26)</sup> 등의 풍경구조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伊藤(1986)<sup>12)</sup>은 風景構造의 原型을 圖示하였다. 한편 油井(1984)<sup>34)</sup> 등은 景觀체험에 있어 視點重要度要因을, 渡邊(1986)<sup>3)</sup>은 名所의 形體要素를 세분화하였다. 또 小林(1985)<sup>27)</sup>(1987)<sup>28)</sup>(1989)<sup>29)</sup>는 雨景觀, 音響景觀 등 景觀변화요인의 효과와 景觀적 어휘의 관련성을, 鳴海(1989)<sup>23)</sup> 등은 浪化百景에 묘사된 도시景觀구조에 관해 고찰하는 등 景觀구성요소의 조작적 분화를 통해 景觀

의 본질을 밝히고자 하는 一連의 연구가 다수 수행되어 왔다.

국내의 연구로 鄭(1989),<sup>23)</sup> 金(1988),<sup>18)</sup> 金(1990)<sup>20)</sup>은 聚落景觀의 내적의미와 구조적 원리를 밝히고자 했으며 任(1988),<sup>13)</sup> 黃(1989)<sup>10)</sup> 11) 등은 景觀의 개념과 다양성을論하였고 崔(1990)<sup>5)</sup>는 曲과 景의 景觀解釋을 통해 전통景觀의 구조를 究明하고자 하는 등의 몇몇 연구가 있지만 보다 객관적·합리적 결론 도출을 위한 방법론적 개선의 여지가 많다<sup>41)</sup>고 본다.

景觀이 인간의 실제생활이 영위되는 실체가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벗어난 觀察者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靜觀할 경우에 형성되는 ‘이미지’라는 共通性<sup>11)</sup>을 形體化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통해 인간의 요구와 자연의 힘간의 적정한 상호작용을 基低에 둔 操作論의 把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우리민족의 諸 전통적 가치관 중에서 景觀에 대한 分析的 考察을 목적으로 여러사람의 관심으로부터 공통적으로 誘導되어 형성된 知覺 바탕 위에서 韓國의 景觀의 특질과 그 構成要素의 相互關聯性을 操作論의 側面에서 분석·평가하여 傳統的 風景概念의 構造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研究의 對象

#### 가) 研究對象

丹陽八景, 關東八景 등과 같이 옛부터 口傳되어 오거나 문헌에 기록되어 온 八景을 研究對象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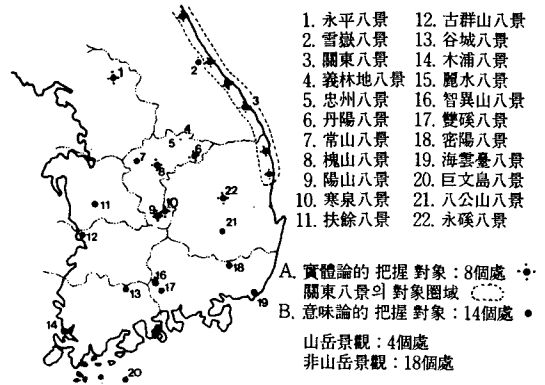
본 연구에 부합되는 八景의 의미는 연속적으로 보여지는 아름답거나 흥미있는 自然界의 現象이나 자연특질을 지닌 여덟 場所를 指稱하는데, 崔(1990)는 아름다운 八景만을 오로지 지명한 것은 八景의 유래로 알려진 瀟湘八景에서의 流傳과 八字가 갖는 象徵性 및 觀念性 등에 注目하였다.

본 考에서는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景 중 문헌고찰로 比率上 他景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분석자료의 표준화가 용이한 八景만을 연구대상으로 하

\*註 1) 計量的 接近과 現象學的 接近方法의 모순점을 상호 보완하는 차원의 내용적·방법적 개선여지를 일컫음.

	景觀主體의 觀覽行爲	景觀構成要素					
		自然地形	OPEN SPACE	都市 軟容施設	道路	敷地建物	設備
廣域	觀覽行爲 空에서의眺望 山에서의眺望 海에서의眺望	自然地形景觀	廣域의 景觀				
都市	↑	都市의 景觀					
地域	車輛走行中の眺望	都市轉 景觀					
地區	限上에서의眺望	市街地區 景觀					
街區	↓ 步行中の眺望	街區의 景觀					

[圖 1] 階段構成에 의한 八景의 空間性格



[圖 2] 分析對象으로 選定된 八景의 全國의 分布

였다.

油井 등(1984)의 景觀構成階段에 따르면 八景을 지닌 自然景勝地는 주로 圖 1의 A部로서 비교적 광역적이며 자연성이 강한 眺望型景觀으로 視點의 限定如否에 관계없이 短期景觀이 대부분이다.

나) 研究對象의 選定背景

上記 평가대상은 선현들의 詩歌的 享有的 터전으로 장구한 세월에 의해 培養된 공간의 適所性에 따른 遠心의 眺望과 自然回歸의인 감상행위가 詩歌的 韻律의 차원에서 升华되었고, 오랜 체험과 인구에 膾炙하면서 누적되어 형성된 傳統의 風景美와 景觀構造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인식에서이다.

다) 研究對象의 選定過程

鄉土資料誌,<sup>\*)</sup> 研究論文 및 觀光書籍 등의 문헌 조사에 의해 수집된 123個處 1,182景 중 자료 자체의 實體性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교적 공신력이 인정되는 韓國觀光資源總覽(1988)과 韓國의 旅路(1985)에 소개되어 그 실체(所在)가 인정되고 회복이 가능한 意味<sup>\*)</sup>의 景<sup>\*)</sup> 14個處 112景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 이와 비교를 위해 8個處 64景의 實體의 景을 추가로 선정하였다(圖 2).

3. 研究方法

가) 文獻調査 및 現地踏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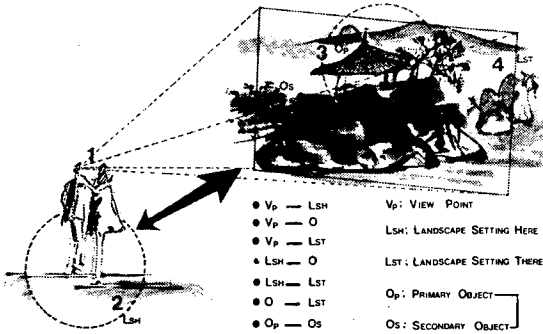
一次의으로 문헌조사를 並行하여 1989년 2월부터 1990년 3월까지 현지답사를 통해 확인된 八景의 景觀類型(影響圈, 構圖의 類型, 眺望形態 등)<sup>30)</sup> 과 度邊(1986)의 景觀요소분류에 의한 景觀대상 및<sup>\*)</sup> 景觀특성을 조사표에 구분·기록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명유래의 불확실함, 계절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확인이 곤란하거나 破毀된 景은 현지 주민과의 인터뷰 또는 문헌에 의존하였다.

나) 景觀構成要素의 相互關聯性 檢討

調査表에 의해 분류된 각 경의 景觀構成要素分析과 요소간의 關聯性은 『景觀把握 모델』<sup>30)</sup>에 의해 추정하였다.

場所에 선 인간이 감지하는 景觀像은 그 인간이 선 장소에서의 양상과 멀리서 볼 때의 양상 및 이 양상 상호의 對應과 調和로 나타난다.<sup>33)</sup> 조사표에 의해 분류된 景觀구성요소 상호간의 關係를 圖 3과 같이 7 가지로 대별하는 한편 景觀體驗樣式을 결정하는 八景의 의미와 요소 사이의 內의關係를 推論하였다.

\*註 1) 내고장전통가꾸기(목포시, 1981) 등의 市·郡誌로 왕복우편을 통해 회수한 부분적 복사자료가 대부분이며 참고·인용문헌에 기록하지 않았다.  
 2) 象徴, 自然現象 또는 인간의 삶이 내재된 상태의 景觀 客體를 위주로 한 景.  
 3) 물리적 대상체를 景觀 客體로 하거나 또는 명확한 주대상으로 하는 景으로 본 연구대상이 주로 충북과 경기, 강원도 일부로 한정된 것은 作爲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참고자료 분석을 통해 無作爲로 추출된 것임.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八景』의 意味體驗에 關한 研究”(慶熙大 造景論叢 제3집 1호, p.29)를 참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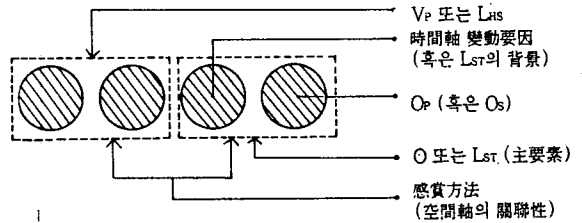
篠原修의 景觀把握 모델을 再構成한 것임  
(資料: 土木學大系 13 景觀論(1977) p.50)

[圖 3] 景觀構成要素의 相互 關聯性 檢討

다) 景觀變動要因의 分析

백분율에 의한 頻度(Frequency)分析으로 八景의 變動要因을 究明코자 하였다.

앞서의 방법과 八景을 구성짓는 한자성어풀이(圖 4)를 기반으로 時間軸과 空間軸을 추정한 후 表 1과 같이 景觀要素를 또 다른 軸으로 한 各景의 類型分類를 통해 3차원적 圖示에 의한 八景의 構造 解釋을 試圖하였다.<sup>15)</sup>



[圖 4] 景의 漢字成語 풀이

[表 1] 景觀變動要因의 分類軸

時間軸 (X)	空間軸 (Y)	景觀要素軸 (Z)
A. 漸時的(瞬間的) 現象	A. 視點의 變化	A. 形體要素(建築, 土木)
B. 時刻的 現象	B. 視點場의 變化	B. 形體要素(地形, 地貌, 生物)
C. 季節的 現象	C. 主對象의 變化	C. 意味要素
D. 經年的 現象	D. 對象物의 變化	D. 風土要素

II. 八景의 實體論的 把握과 視覺體驗

인간에게 喚起되는 情感的 感應에 關係 S. C. Pepper(1949)는 세가지 의미, 즉 感覺的 融合(sensory fusion)에 의한 情感, 本能的 動因(instinctive drive) 그리고 氣分(mood)에 의한 情感을 들고 있으나<sup>2)</sup> 이러한 원리상 구별을 떠나 실제적으로는 상호 복합·중복되어 美的(視覺的) 意味의 체험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意味의 체험과의 비교를 위해 실제적 景觀과학의 대상으로 선정된 八景의 主對象은 非移動性(immobility)<sup>22)</sup>이라는 자연경관의 주된 성격을 기초로 하는 即物的·景觀支配의 影響圈이 대부분이며 자연적 특질의 생김새를 가지고 형상화하여 指稱하거나 상상적 직관<sup>17)</sup>에 의해 관념적인 連想體驗을 구체화하여 표현하였다. 따라서 다분히 地形景觀(Feature Landscape) 또는 焦點景觀(Focal Landscape)의 景觀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李(1983)<sup>38)</sup>의 資源價値評價因子 분류방식에 의거하여 분류한 주대상은 表 2에서와 같이 建築的 要素인 亭(14.1%), 臺(9.4%)와 地貌的 要素인 岩(14.1%)과 峰(7.8%)이 타요소에 비해 높은 출현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동양의 산수화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景物들 사이의 水面과 烟雲에 따라 넓은 공간과 여백이 전개됨으로서 세속을 떠난 절경에서의 形而上學의 美意識을 체험하고자 했던 한국인의 特徵의 空間感<sup>1)</sup> <sup>24)</sup>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思料된다.

그러나 八景을 구성하는 주대상요소들의 뚜렷한 일관성의 흐름은 발견되지 않으며 가변성이 극히 저조한 經年的 變動要因을 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圖 5, 表 2 참조).

특이하게 關東八景을 이루는 主對象(Op)은 대부분 건축적 형체요소를 위주로 한 景觀적·시각적 영향권 또는 나아가 심리적 영향권내의 實물적



위한 視點場(L<sub>SH</sub>)이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八景의 지정에는 어떤 일정한 맥락을 발견하긴 어려우며 景끼리의 연속적인 체험을 통해 知的 好奇心을 만족시켜 주기 위한 요소의 배합이나 'Motive'의 뚜렷함도 읽을 수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미적 快適性의 체험과 함께 구체적인 對象體에 의한 即物的인 연상 체험이 큰 역할을 하는 실체적 景은 대상이나 대상장의 조작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며 단지 시점의 이동을 통한 시각적인 변화의미를 얻을 수는 있으나 V 또는 L<sub>SH</sub>의 고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시점의 선택을 對象物의 繪畫的 構成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때로는 副對象(Os)의 操作을 통해 兩眼時差 效果(Parallax Effect)를 노린 공간미를 誘導<sup>25)</sup>하는 등 景觀의 深度를 附與하여 흥미를 유발시킴으로써 주대상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

### III. 八景의 意味體験

瀟湘八景을 유래로 하여 시작된 八景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觀念化·理想化되는 가운데 視覺的인

結束語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八景의 특징과 모티브를 주도해 왔다."

崔(1990)는 八景에 나타난 景의 대상분석에서 景의 대상을 '自然景觀의 일부로서의 景' '自然現象으로서의 景' 그리고 '生活속의 景'으로 구분하면서 "景의 표현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강한 忍耐에 의한 자연미의 觀察과 극히 些少한 혹은 극히 일시적인 자연현상에 대한 美의 探究姿勢를 읽을 수 있다"고 밝혔듯이 형체미적인 可視體 이외에도 風土要素를 담은 시간축의 변동요인으로 이루어진 游동미가 景勝地 八景을 이루는 주요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같은 물적 대상이라도 표현 形容語가 각기 다른 것은 詩人墨客들이 사랑한 것은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대상을 표현하고자 했던 '言語'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조차 든다. 아뭏든 이는 평범한 대상을 季節, 時刻, 天候 및 一日의 시간변화를 통해 언어가 내포한 다양성의 의미를 最大化하면서 대상의 最高狀態를 발견코자한 노력의 흔적이며 우리 선인의 風流性을 반영한 결과라 본다.

또한 木浦八景의 제8경인 達寺晚鐘이나 忠州八景의 제2경인 琴臺暮煙 또한 雲嶽八景의 제7경인

[表 3] 意味의 把握에 의한 景觀要素의 分析

區分	景觀要素의 分類		名計 (X)	$\frac{\%X}{(\frac{X}{112} \cdot 100)}$	小計 (X')	$\frac{\%X'}{(\frac{X'}{112} \cdot 100)}$
形體要素	建築 土木	뫼단배(2), 臺, 古樓, 久齋, 臺上	6	5.34	30	26.8
	地形 地貌	瀑布(4), 明沙(2), 峰(3), 浣紗, 溪石, 寄岩, 溫泉, 流水, 怒潮	15	13.4		
	生 物	柳, 소나무와 회나무, 柱鵲, 落雁(4), 鶻(2)	9	8.04		
意味要素	行 事	歸帆(6), 暮煙, 點火	8	7.14	29	25.9
	產 業	魚歌, 漁火(4)	5	4.46		
	故 事	天樹, 昇天, 怒潮	3	2.68		
	感 覺	暮鍾(4), 仙境, 曉鐘(2), 春色, 香薰, 曉鐘, 曉角, 樵笛, 歸雲	13	11.61		
風土要素	氣 候	靑風, 晴嵐(2), 淸風, 宿雨(2), 朝霞, 霧雨, 有虹, 흰구름 아지랑이, 雲海, 소낙비	13	11.61	53	47.3
	時 刻	霽月(3), 落照(7), 日出(2), 夜月, 밝은달, 새벽별, 朝日, 夕陽 印月, 暮雨, 暮雲, 暮雪, 返照, 夜雨, 朝旭	24	21.43		
	季 節	丹楓(2), 가을, 積雪, 秋月(3), 春花, 가을밤, 春雪(2), 雪景 黃葉, 春雨, 楓林, 雪松	16	14.29		

( )은 重複回數

滿山香薰 등(表 5)은 각각 청각·시각·후각적 요소가 주체가 된 景의 內容의인 意味體驗을 경험하게 된다.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풍토요소(47.3%), 형체요소(26.8%) 및 의미요소(25.9%)의 순으로 비교적 고른 경관요소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瀟湘八景에서 유래된 落雁(4), 歸帆(6), 暮鍾(4), 晴嵐(2) 및 夕照(落照 7) 등이 역시 視覺的 結束을 유지한 채 조사분석된 八景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분석내용을 더욱 세밀히 검토하기 위해 木浦八景(圖 7, 表 4)의 경관구성요소와 변동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木浦八景을 비롯한 意味論的 八景의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16處 八景의 주대상요소의 可變性 深度를 실제적 八景과 비교해 보았다.

圖 5와 같이 경관대상 구성의 다양함을 보여주며

可變性深度가 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表 4에서와 같이 의미적요소와 풍토적 요소가 중요한 경관대상으로 체험의 풍부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密陽八景이나 扶餘八景(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슷한 풍토적 여건속에서 視覺的 結束語를 최소한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鄉土性이 반영, 土着된 이유로 보인다.

특히 언급된 바와 같이 八景의 각 특징과 모티브(Motive)는 일종의 세트(Set)화 되고, 文學的 連想作用을 바탕으로 流轉되면서 패턴(pattern)화된 것으로 믿어진다.

圖 6은 木浦八景에서의 文學的 連想이 어떤 식으로 유발되고 있는가를 作者未詳의 儒仙歌를 통해 알아본 것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선조들의 자연과 밀착된 親密感과 風流性을 엿볼 수 있다. 儒仙歌에서

[表 4] 木浦八景의 景觀分析

八 景	內 容	景 觀 對 象			變 動 要 因	
		要素	Op	Os	時間軸	空間軸
1. 儒達寄岩	寄岩絶壁이 疊疊하여 바다와 平野사이에 솟은 精氣어린 靈山	形體要素	寄岩	儒達山	經年	$L_{SH}-O$
2. 龍頭歸帆	해질무렵 돛단배가 古下島 龍머리를 미끄러지듯 돌아오고 있는 風景	意味+形體要素	歸帆	古下島 바다	瞬間	$L_{SH}-L_{ST}(O)$
3. 牙山春雨	儒達山에 올라 靈岩쪽 牙山에 내리는 봄비	風土要素	雨	牙山	季節(春)	$L_{ST}-L_{SH}$
4. 笠岩返照	갯바위를 돌아 서서히 물들어 가는 夕陽의 노을빛	風土要素	夕陽(노을빛)	갯바위 바다	時刻(夕)	$L_{SH}-L_{ST}$
5. 三鶴楓林	세마리의 鶴이 섬으로 변했다는 傳說이 내려오는 三鶴島의 가을 丹楓	意味+形體要素	가을丹楓	三鶴島 바다	季節(秋)	$L_{ST}-L_{SH}$
6. 錦江秋月	굽이쳐 흐르는 南道의 젓줄기 榮山江 밤하늘의 휘영청 걸린 달	風土要素	밝은 달	錦江	季節(秋)	$L_{ST}-L_{SH}$
7. 高下雪松	李忠武公의 忠節이 서려있는 古下島 老松위에 눈덮인 風景	風土要素	눈덮힌노송	古下島	季節(冬)	$L_{ST}-L_{SH}$
8. 達寺晚鐘	儒達山에서 은은히 울려 퍼지는 달성사의 저녁 종소리	意味要素	종소리	達成寺	瞬間(一時的)	$O_p-L_{ST}$

는 경관체험을 위한 時點場이라는 한정된 경관주체의 위치가 나타나 있다. 이 위치는 넓은 시계를 갖는 다분히 鳥瞰의 風景의 정지된 상태에서의 자

연의 관찰이며 탐구이자 한편으로는 우리민족의 전통적 자연관인 自然同과나 自然依支의 방식과도 상통한다.

儒仙歌

죽장망해 단표자로 神仙臺 보라하고  
儒達山 石傾路를 허유 허유 올라가니

中略

笠岩返照의 Os

錦江秋月の Lst

영산강 구비도는 갓바위도 장할시고 飄酒一作 후에  
유선각 돌아드니 雲中飛燕이요 天涯仙境이라.

中略

儒達寄岩의 Op

寄岩怪石 구비도라 쇠고리 겨우잡고  
상상봉에 올라서니 이게바로 神仙臺라  
(종다종다 억천년 지킨 志操 莊嚴도 하울시고  
진세를 멀리떠나 居塵出塵 아닐가) (중중머리)

木浦八景의 LSH, Vp

中略

高下雪松의 Op

高下島 푸른 松林 忠武魂이 잠겼구나.

三鶴楓林의 Op

三鶴島 너울너울 푸른물에 등실뜬듯

龍頭로 도라드는 遠

遠浦歸帆의 Op, Os

浦歸帆이 더욱 좋아

落照는 吐紅하고

笠岩返照의 Op

서해를 넘실넘실 무심한 갈매기는 水面을 자질하며  
편편이 나라들제 다도해 저문연기 魚笛도 처량하다.

達城寺 원종성이 은은히 들러올제

達寺晚鐘의 Op

어느듯 一輪明月 東天에 솟았구나.

天外萬里 無頽滄波 대자연의 신비로다.

나도 또한 神仙되어 달을 띄고 내려 올제

이심경 이지경에 춤안추고 어이하리

너부렁거리고 돌아보세.

[圖 6] 文學的 連想과 木浦八景

그러나 景觀客體인 대상(O)과 대상장(Lst)은 매우 가변적이라는 것을 보게된다.

圖 8에서 보여주고 있는 對象場은 本人의 연구 결과 대략적인 推定이나 視點 및 視點場의 이동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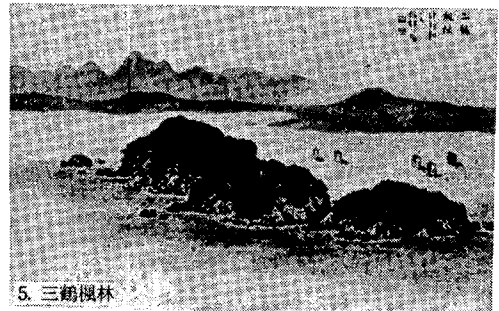
따라 문학과 景觀 더 나아가 문학적 연상과 景觀의 체험이라는 상호 밀접성을 암시한다.

木浦八景에서 나타나는 시간축의 景觀變動요인은 瀟湘八景과 유사한 視覺的 結束의 추종을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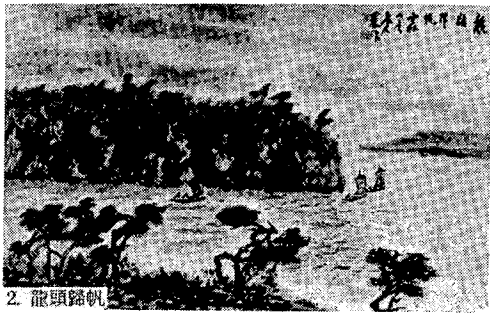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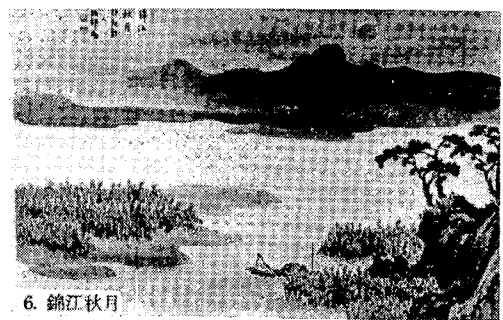
1. 儒達奇岩 畫 : 南農 허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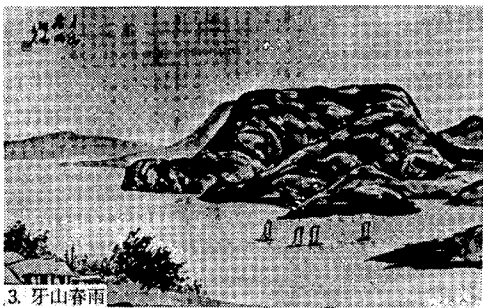
5. 三鶴楓林 畫 : 稻邨 신 영복



2. 龍頭歸帆 畫 : 南農 허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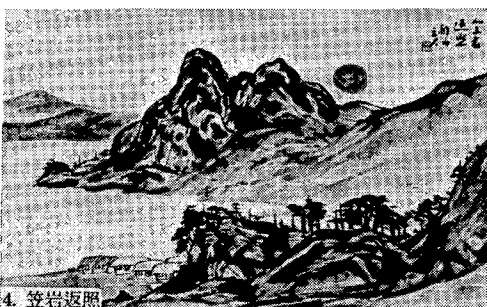
6. 錦江秋月 畫 : 稻邨 신 영복



3. 牙山春雨 畫 : 雅山 조 방원



7. 高下雲松 畫 : 白浦 곽 남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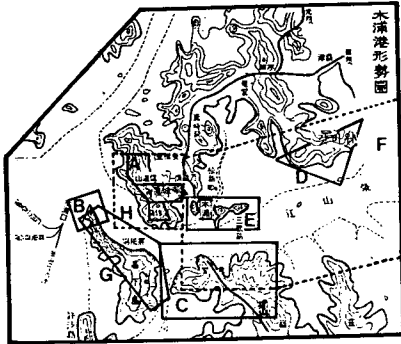


4. 笠岩返照 畫 : 雅山 조 방원



8. 達寺晚鐘 畫 : 白浦 곽 남배

[圖 7] 繪畫로 表現된 木浦八景



- A. 儒達奇岩
- B. 龍頭歸帆
- C. 牙山春雨
- D. 笠岩返照
- E. 三鶴楓林
- F. 錦江秋月
- G. 高下雪松
- H. 達寺晚鐘

[圖 8] 木浦八景의 景觀影響圈

준다. 瀟湘八景에서의 의미적 · 형체적 경관요소는 木浦라는 지역적 특성에 의한 '인간 삶'의 요소와 향토성 짙은 風土要素의 반영으로 보다 非觀念化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視覺的인 結束에 의한 경관의 典型化(stereo type)는 퇴색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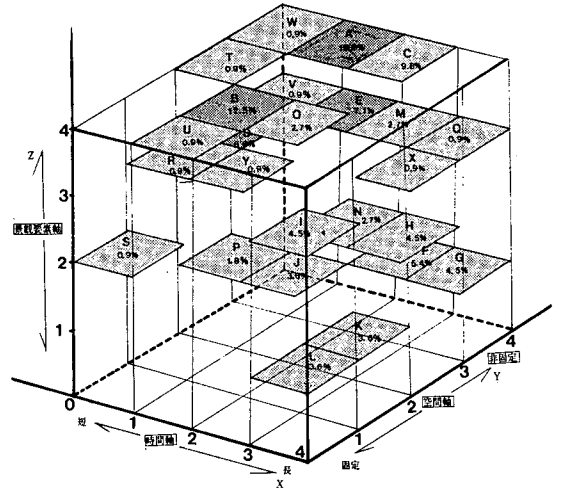
그러나 단순한 自然觀照에서 벗어나 중복된 이미지 체험으로 최고의 경관현상을 발견 · 탐구하려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 IV. 八景의 變動要因과 意味構造

자연경관을 비롯한 景觀一般의 매력을 증가시키는 경관설계가 되기 위해서는 미적인 면에서의 질서와 다양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힘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表 5는 의미론적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18處 128 景을 시간축(X축), 공간축(Y축) 그리고 경관요소축(Z축)으로 구분하여 경관과악모델에 의한 推論과 八景 漢字成語풀이를 통해 얻은 경관변동요인을 究명한 것이다.

시간축의 주변동요인으로는 季節→時刻=經年→漸時(瞬間)의 현상에 의한 順이었으며 공간축은 대상장(L<sub>ST</sub>)→주대상(O<sub>p</sub>)→시점장(L<sub>SH</sub>)→시점(V)의 변화에 의한 順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관요소축의 변동요인은 전술한 表 3에서와 같이 형체(建築 · 土木)→형체(地形 · 地貌生物)→의미→풍토요소로 가변성이 높아짐과 함께 주요변동요인으



- 時間軸 (X)**
  1. 漸時的(瞬間)의 現象
  2. 時刻的 現象
  3. 季節的 現象
  4. 經年的 現象
- 空間軸 (Y)**
  1. 視點(V<sub>p</sub>)의 變化
  2. 視點場(L<sub>SH</sub>)의 變化
  3. 主對象(O<sub>p</sub>)의 變化
  4. 對象場(L<sub>ST</sub>)의 變化
- 景觀要素軸 (Z)**
  1. 形體要素(建築, 土木)
  2. 形體要素(生物, 地形, 地貌)
  3. 意味要素(行事, 產業, 故事, 등)
  4. 風土要素(氣候 등)

[圖 9] 八景의 變動要因의 圖解

로 可變性要因이 경관구성요소가 상호 동적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작용함이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季節的 現象-對象場의 變化-風土要素의 可變性(15.2%)要因이 경관구성요소가 상호 動的均衡狀態를 유지하는 가운데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八景의 경관유형도 地形景觀이나 焦點景觀뿐만 아니라 파노라믹景觀(Panoramic Landscape)이나 一時的 景觀(Ephemeral Landscape)으로 의식된다.

이는 자연경관이 갖는 일반적인 성격의 非移動性(immobility)이라는 固定觀念을 떠나 季節性(seasonal), 多樣性(diversity) 그리고 變動性(changeability)의 '變化의 美'가 우리나라 傳統景觀의 핵심적인 경관이미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圖 9는 表 5에서 분석된 변동요인을 3次元의으로 圖示한 것이다.

[表 5] 八景의 變動要因 分析

景勝地名	八景	時間軸	空間軸	景觀軸	類型*	%
雪嶽八景	1. 龍飛昇天	A	A	C	V	0.9
	2. 雪嶽霧海	C	D	D	A	15.2
	3. 七色有紅	D	D	D	W	0.9
	4. 紅海黃葉	B	D	B	F	5.4
	5. 春滿椰燭	B	D	B		
	6. 月夜仙峰	C	D	C	E	7.1
	7. 滿山香蕪	B	D	C	M	2.7
	8. 開花雪景	B	D	D	C	9.8
忠洲八景	1. 南山朝霞	C	D	D		
	2. 琴臺春燈	C	D	C		
	3. 鷄山落照	C	B	D	B	8.9
	4. 達川漁火	C	D	C		
	5. 荷潭秋月	B	B	D	O	2.7
	6. 薇山春花	B	D	B		
	7. 沙川落雁	D	C	B	J	3.6
	8. 玉江歸帆	C	D	C		
常山八景	1. 平沙落雁	D	C	B		
	2. 牛潭霽月	C	D	D		
	3. 錦溪浣紗	A	D	B	G	4.5
	4. 頭陀暮鐘	D	C	C	D	8.9
	5. 常山暮雲	C	D	D		
	6. 龍岩暮雪	B	D	D		
	7. 漁隱溪石	A	B	B	K	3.6
	8. 笛臺晴嵐	A	D	C	Q	0.9
扶餘八景	1. 白濟塔의 落照	C	D	D		
	2. 扶蘇山의 日出	C	B	D		
	3. 犀蘭寺의 새벽종소리	B	D	C		
	4. 白馬江의 봄빛	B	D	D		
	5. 大旺浦의 돛단배	D	C	A		
	6. 萬光地의 가을	B	D	D		
	7. 마래방축의 벼들	B	C	B	N	2.7
	8. 白馬江기슭의 松檜	A	D	B		
古群山八景	1. 仙遊落照	C	D	D		
	2. 三島歸帆	D	D	C		
	3. 壯子漁火	C	D	C		
	4. 月影臺	A	A	A	L	3.6
	5. 平沙落雁	D	C	B		
	6. 舞山十二峰	A	C	B		
	7. 望柱峰	A	C	B		
	8. 明沙十里	A	D	B		
谷城八景	1. 勳樂朝日	C	B	D		
	2. 雪山落照	C	B	D		
	3. 鴨綠歸帆	D	D	C		
	4. 泰安杜鵑	C	D	D		
	5. 通明宿雨	C	D	D	U	0.9
	6. 鳩江清風	C	D	D		
	7. 道林曉種	D	C	C		
	8. 大荒漁火	C	D	C		
木浦八景	1. 儒達寄岩	A	B	B		
	2. 龍頭歸帆	D	B	C	R	0.9
	3. 牙山春雨	B	D	D		
	4. 笠岩返照	C	B	D		
	5. 三鶴楓林	B	D	C		
	6. 錦江秋月	B	D	D		
	7. 高下雪松	B	D	D		
	8. 達寺晚鐘	D	C	C		
麗水八景	1. 竹島清風	C	D	D		
	2. 姑蘇舞月	C	B	D		
	3. 寒山暮鐘	D	C	C		
	4. 梅城曉角	D	C	C		
	5. 鐘浦漁歌	D	C	C		
	6. 隸岩樵笛	D	C	C		
	7. 鳳岡晴嵐	C	D	D		
	8. 馬袖朝旭	C	D	D		
智異山八景	1. 老姑禮雲海	C	B	D		
	2. 靛田丹楓	B	D	B		
	3. 般若峰 落照	C	B	D		
	4. 細石칠경	B	D	B		
	5. 碧宵夜月	C	B	D		
	6. 佛日瀑布	A	C	B		
	7. 煙霞仙境	B	D	C		
	8. 天王峰 日出	C	B	D		
雙溪八景	1. 雙溪印月	C	B	D		
	2. 青鶴古樓	A	A	A		
	3. 懸岩久霽	A	A	A		
	4. 應峰楓葉	B	D	B		
	5. 雙峰飛瀑	A	C	B		
	6. 龍岡暮雨	C	D	D		
	7. 國師天樹	A	C	C	X	0.9
	8. 白雲朝峰	C	B	B	Y	0.9
密陽八景	1. 嶺南樓의 가을밤	B	D	D		
	2. 無風寺의 저녁종소리	D	C	C		
	3. 密陽江의 夕陽	C	D	D		
	4. 龍頭山의 밤비	C	D	D		
	5. 三門洞의 아지랑이	B	D	D		
	6. 南浦의 돛단배	D	C	A	P	1.8
	7. 河浦의 기러기떼	D	C	B		
	8. 終南山의 春雪	B	D	D		
海雲臺八景	1. 海雲臺上	A	A	A		
	2. 五六歸帆	D	C	C		
	3. 莫山瀑布	A	B	B		
	4. 龜南溫泉	A	D	B		
	5. 烽火點火	D	D	C	I	4.5
	6. 牛山落照	C	D	D		
	7. 莫旨流水	A	B	B		
	8. 春川躍魚	D	D	B	S	0.9
巨文島八景	1. 橘亭秋月	B	B	D		
	2. 竹林夜雨	C	D	D		
	3. 鹿門怒潮	D	C	D	T	0.9
	4. 龍山落照	C	D	D		
	5. 白島歸帆	D	D	C		
	6. 梨谷明沙	A	D	B		
	7. 紅國漁火	C	D	C		
	8. 石潭歸雲	C	D	C		
八公山八景	1. 無心峰의 원구름	C	B	D		
	2. 祭天壇	C	D	D		
	3. 積石城의 밝은달	C	B	D		
	4. 百里嶺 쌍인눈	B	D	D		
	5. 錦塙 단풍잎	B	C	B		
	6. 浮屠瀑布	A	C	B	H	4.5
	7. 藥師峰 새벽별	C	B	C		
	8. 桐華寺 종소리	D	C	C		

時間軸

- A. 漸時的(瞬間的) 現象 (21 : 18.75%)
- B. 時刻的 現象 (25 : 22.32%)
- C. 季節的 現象 (41 : 36.61%)
- D. 經年的 現象 (25 : 22.32%)

空間軸

- A. 視點의 變化 (8 : 7.14%)
- B. 視點場의 變化 (22 : 19.64%)
- C. 主對象의 變化 (25 : 22.32%)
- D. 對象場의 變化 (57 : 50.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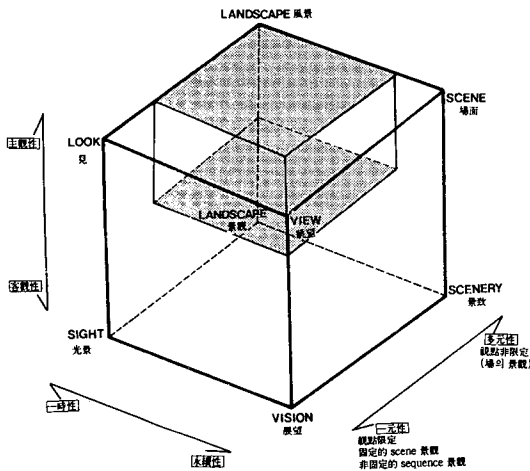
景觀要素軸

- A. 形體要素(建築, 土木)
- B. 形體要素(生物)
- C. 意味要素(行事, 產業, 故事 等)
- D. 風土要素(氣候 等)

\*類型 A,B,C..... 등은 필자가 임의대로 붙인 기호로 Y까지 25개의 경관변동 유형으로 세분되었음.

### V. 結 論

圖 10은 圖 9의 도시내용을 再圖解한 것이다. X 축은 경관내용의 시각적 捕捉機會의 多少(영속적 ↔ 일시적)를 나타내고 Y축은 최고의 景觀狀態 眺望이 가능한 視點限定 또는 時點場의 크기(일원성 ↔ 다원성)에 따른 분류이며 Z축은 의미체험에 따른 想像的 直觀(知的 連想 등)의 大小(주관성 ↔ 객관성)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圖 10] 八景에 나타난 風景 概念의 構造

“景觀은 風景보다도 객관적·과학적인 개념을 내포한다”<sup>21)</sup>는 岡崎(1970)의 견해와 같이 八景에 나타난 경관은 圖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風景에 가까우며 어떤 일정된 시점에서의 단순한 전망(vision)에 의한 고정적 scene 또는 비고정적 연속(sequence) 경관이라기 보다는 일시성을 띤 시점非限定的 場의 景觀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단순히 ‘眺望한다(sight)’는 개념 보다는 ‘주의하여 보다(Look)’라는 連想的·體驗的 意味內容이 含蓄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종합해 볼 때 八景은 餘他的 자연 경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구성요소의 특이성과 변화성(변동요인)을 축으로 內的 自己完結성을 가질뿐 아니라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였던 우리 선조들의 文化的 風流性과 自然과의 親和性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관계의 삶의 공간이라 이해되어진다.

八景을 보유한 自然景勝地는 意味論的 景觀體驗이 가능한 感情移入을 통해 理解容易性(easy comprehensibility)을 돕도록하는 景觀設計가 요구되며 이는 경관의 품격을 살림으로써 內面的 滿足追求(Capacity to satisfy)까지도 가능케 하리라 본다.

아울러 이러한 傳統的 風景의 창의적 보전(creative conservation)을 통한 탐방 루트(Route)의 開設 및 誘導 등을 통한 對象場(Lst)의 開發制限이 필요하리라 思料된다.

### 引用文獻

1. 安輝濬(1988), 韓國繪畫의 傳統, 文藝出版社, pp.163~213.
2. 白琪洙(1981), 美의 思索, 서울大學校出版部, pp. 28~40.
3. 渡邊勝彦外 1人(1986), 名所の形體要素, 日本都市計劃學會研究論文集, pp.13~18.
4. 崔光烈(1981), 韓國自然論, 集文堂, pp.42~104.
5. 崔杞秀(1990), 曲과 景에 나타난 韓國傳統景觀 構造의 解釋에 關한 研究. 漢陽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6. G. Eckbo(1972), 久保貞譯, 景觀論, 鹿島出版會, pp.25~30.
7. 掘繁外 2人(1988), 體驗さねた 風景の構造, 造園雜誌 51(5), pp.287~292.
8. 韓國觀光公社(1985), 韓國觀光資源總覽.
9. 韓國日報社(1984), 韓國의 旅路.
10. 黃琪源(1989), 風景畫에 나타난 景觀, 環境論叢, Vol. 24, pp.26~28.
11. \_\_\_\_\_ (1989), 景觀의 多義性에 關한 考察, 韓國造景學會誌, Vol. 17, pp.55~68.
12. 伊藤精悟(1986), 風景概念の構造に關する研究, 造園雜誌 50(1), pp.39~44.
13. 任勝彬(1988), 景觀分析 및 評價方法에 關한 研究, 韓國造景學會誌, Vol. 16, No. 1, pp. 43~51.
14. 中央日報(1990), 벽지개발에 景觀·文化특성을 살리자, 제 7530호.
15. 秦熙成外 1人(1990), ‘八景’의 意味體驗에 關

- 한 研究, 慶熙大學校 造景論叢, Vol. 13, No. 1, pp.25~40.
16. 鄭基浩(1986), 自然과 人間意識과의 關係로 본 聚落景觀에서의 內的意味에 關하여, 韓國造景學會誌, Vol. 14, No. 2, pp.17~26.
  17. 金佻來外 1人(1990), 直觀的 體驗에 의한 景觀意味 解釋에서의 內的意味에 關한 研究, 慶熙大學校 高鳳論集, Vol. 7, pp.195~216.
  18. Kim, Sung-Kyun(1988), Winding River Village; Poetics of a Korean Landscape, ph. D. Dissertation, U. of Pennsylvania.
  19. 金元龍(1978), 韓國美의 探究, 열화당, pp. 42~104.
  20. 金容珪(1990), 聚落景觀 解釋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1. 岡綺文彬(1970), 森林風治とレクリエーション, 日本林業調査會, p.28.
  22. 朴石熙(1989), 新觀光資源論, 明寶文化社, pp.98~118.
  23. 鳴海邦碩外 3人(1989), “浪花百景”に描かれた 近世大版の都市景觀構造に關する考察, 第23回 日本都市計劃學會研究論文集, pp. 223~228.
  24. 박언곤(1989), 한국의 정자, 대원사, pp.75~76.
  25. 盧載鉉(1988), Parallax 空間美를 應用한 景觀演出效果에 關한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p.1~2.
  26. 上杉武夫(1982), 造園의 風景構造論的研究, 造園雜誌, 46(1), pp.50~54.
  27. 小林亨(1985), 雨의 風景に關する基礎的研究, 第19回 日本都市計劃學會研究論文集, pp. 193~198.
  28. \_\_\_\_\_ (1987), 景觀の移ろい效果に關する基礎的研究, 造園雜誌, 50(5), pp.263~268.
  29. \_\_\_\_\_ (1989), 音響景觀の把握と鑑賞に關する基礎的研究, 第23回 日本都市計劃學會研究論文集, pp.439~444.
  30. 篠原修外 4人(1977), 土木工學大系 13, 景觀論, 景觀體驗と景觀の操作, 彰國社, pp.33~126.
  31. \_\_\_\_\_ (1979), 新體系土木工學, 土木景觀計劃, pp.27~54.
  32. 桶口忠彦(1975), 景觀の構造, 技報堂.
  33. 鹽田敏志外 3人(1968), 自然風景地計劃のための 景觀解析 I, 觀光 18號, p.36.
  34. 油井正昭外 1人(1984), 景觀アセスメントの技術論, 造園雜誌, 48(1), pp.11~18.
  35. 禹慶國(1985), 韓國의 水景과 建築空間과의 만남에 關한 研究, 韓國庭苑學會誌, Vol. 4, No. 1, p.1.
  36. Whittow, John B.,(1979) “Landscape perception”, edited by Brian Goodall & Andrew Kirby, Resources & Planning, Pergamon Press, p.244.
  37. 早崎正城(1981), 觀光地景觀の評価に關する研究, 日本觀光協會研究報告, 第11號 pp.14~24.
  38. 李長春(1983) 관광자원론, 大旺社, p. 25~85.